

# 치위생학과 학생의 직업인성역량에 관한 연구

김영선 · 정영란 · 이정화\*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 1. 서론

기술의 세분화와 첨단화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게 만들면서 타인 및 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고, 개인주의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성교육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는데 있어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에 표준화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상으로 소통과 융합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협업을 중요한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sup>. 2017년 국제 미래학회의 대한민국 미래교육 보고서에서도 인성을 갖춘 정서역량을 미래 인재 4대 핵심 기반 역량으로 강조한 바 있다<sup>2)</sup>.

최근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타 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치위생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충분한 진로 탐색을 통해 지원하기보다는 취업의 수월성, 가족 및 타인의 권유 등으로 선택하는 학생이 많다.

치과위생사는 인간존중의 정신과 태도, 성실성, 책임감 등의 기본적인 품성과 자질이 요구되며 올바른 인성이 필수적인 역량이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부터 인성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아왔으며 120점 이상의 이수학점, 임상실습, 국가고시 등으로 과중한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로 인성을 발달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하다. 하지만 의료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좋은 인성은 의료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 직업관 확립의 기초가 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sup>3)</sup>.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주어진 문제를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를 확립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연대의식과 실천 중심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sup>4)</sup>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초·중등학교에서

접수일: 2022년 11월 29일 최종수정일: 2022년 12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2월 14일

교신저자: 이정화(Jung-Hwa Lee), (41453) 대구시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Tel: 053-320-1333, Fax: 053-320-1340

E-mail: leejh0704@hanmail.net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단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비하여 역량기반교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융합, 인성 등을 교양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핵심역량의 달성을 교양교육의 교육목표로 삼고 이에 부합하는 교양교과목의 의미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sup>5)</sup>.

직업인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지식, 기술의 인지적 관점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점차 지식의 성과 발현에 필요한 심리·행동 양식과 태도 등 비인지적 관점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필요한 인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연구로 제시되고 있다<sup>6)</sup>. 기업은 스펙 중심 선발 방식에서 협업, 도덕성, 성실성, 적극성 중 개인의 인성 역량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고, 개인의 인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인성을 측정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성격검사, 적성검사, 능력검사, 심리 측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7)</sup>. 따라서, 작업환경과 기업의 인재상 변화로 미래사회에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의 개념도 변화하고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특성들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체 채용에서 올바른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준비된 상태를 확인하여 앞으로 더 준비해야 할 직업인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학생 개인에게는 취업 동기 강화와 취업 준비의 효율성 제고 및 맞춤형 직업인성 향상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0.3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계

산하여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134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어 부적절한 설문 응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50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총 240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과 양(2020)<sup>8)</sup>이 개발한 대학생 직업인성척도(OPSU)를 사용하였다. 자기이해(5문항), 자신감(3문항), 배려(14문항), 의사소통 능력(4문항), 공동체 의식(4문항), 적극성(8문항), 신뢰성(6문항), 맥락적 사고(3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성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55$ 이었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0, IBM Corporation, New Yor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인성 영역별 수준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영역별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 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직업인성영역간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인성척도

연구대상자는 여성 232명(96.7%)으로 많았으며, 만 19세 이하가 126명(52.5%)으로 많았고, 일반계고를 졸업한 학생이 194명(80.8%)으로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196명(81.7%),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118명(49.2%)이 비교적 만족하며, 전공성적은 보통이다 156명(65.0%)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직업인성역량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F=10.589, p<0.000$ ),

전공성적이 높을수록( $F=3.704, p<0.01$ )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Table 1. Occupational Personality Scal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	Occupational personality competence		
			M±SD	t/F(p)	
Gender	Man	8	3.3	3.62±0.71	0.209
	Woman	232	96.7	3.97±0.46	
Age (year)	≥19	126	52.5	3.96±0.47	0.315
	20-22	85	35.4	4.01±0.49	
	23-25	15	6.3	3.74±0.40	
	26-30	9	3.8	3.85±0.48	
	31≤	5	2.1	3.95±0.27	
High school of origin	General	194	80.8	3.95±0.47	0.087
	Technical department	39	16.3	4.08±0.43	
	Arts and Physical	1	0.4	4.29±0.00	
	Etc	6	2.5	3.60±0.62	
Major satisfaction level	Very satisfied	26	10.8	4.37±0.38	0.000**
	satisfied	118	49.2	4.00±0.40 <sup>a</sup>	
	Average	91	37.9	3.82±0.49 <sup>ab</sup>	
	Unsatisfactory	4	1.7	3.31±0.30 <sup>b</sup>	
Part-time job experience	Very dissatisfied	1	0.4	3.25±0.00 <sup>b</sup>	0.667
	Yes	196	81.7	3.98±0.47	
	No	44	18.3	3.86±0.46	
Major performance	Upper	15	6.3	4.00±0.33 <sup>ab</sup>	0.026*
	Middle	156	65.0	4.01±0.47 <sup>a</sup>	
	lower	69	28.8	3.83±0.47 <sup>b</sup>	
Major job selection	Yes	235	97.9	3.97±0.46	0.976
	No	5	2.1	3.29±0.50	

by the Independent one-way ANOVA test at  $\alpha=0.05$

<sup>a,b,c</sup> Means followed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 3.2. 치위생과 학생의 직업인성역량 점수

연구대상자의 직업적응을 위한 직업 인성 역량 평균은  $3.96\pm0.47$ 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별 평균은 배려  $4.51\pm0.4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이  $3.54\pm0.84$ 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 3.3. 연구대상자의 전공 태도와 직업인성척도와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직업인성역량은 전공만족도( $r=0.349, p<0.01$ )와 전공성적( $r=0.154, p<0.05$ )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성적은 직업인성역량의 자기 이해( $r=0.160, p<0.05$ ), 자신감( $r=0.145, p<0.05$ ), 적극성( $r=0.140, p<0.05$ )과 유의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모든

Table 2. Occupational Personality Competency Scor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Variables	Characteristics	Question	M±SD	Min	Max
Occupational personality competence	Self-understanding	5	3.84±0.54	2.60	5.00
	Confidence	3	3.54±0.84	1.00	5.00
	Consideration	14	4.51±0.42	3.21	5.00
	Communication skills	4	3.86±0.65	1.50	5.00
	Community spirit	4	3.95±0.62	2.50	5.00
	Initiative	8	3.67±0.68	1.75	5.00
	Reliability	6	4.06±0.61	2.50	5.00
	Contextual thinking	3	4.24±0.57	2.67	5.00
	Total	47	3.96±0.47	2.52	5.0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Attitudes and Occupational Personality Scale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personality	Major performance	Major satisfaction
Self-understanding	.731**	.160*	.282**
Confidence	.743**	.145*	.226**
Consideration	.696**	.122	.270**
Communication skills	.765**	.122	.223**
Communityspirit	.767**	.004	.195**
Initiative	.835**	.140*	.333**
Reliability	.769**	.112	.353**
Contextual thinking	.754**	.126	.258**

\*p&lt;0.05, \*\*p&lt;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직업 인성역량의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업인성역량 중 하위영역별 평균은 적극성( $r=0.835$ ,  $p<0.000$ ), 신뢰성( $r=0.769$ ,  $p<0.000$ ), 공동체 의식( $r=0.767$ ,  $p<0.000$ ) 순으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배려( $r=0.696$ ,  $p<0.00$ )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 4. 고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작업 환경과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의 변화로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의 개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특성들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주로 직업윤리 교육이나 기초교양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업동기 강화와 취업 준비를 위한 전략 수립에 유용한 도구로 직업 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직업인성역량 상태를 확인하여 더 준비해야 할 직업인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직업인성역량은 전공만족도와 전공 성적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신과 황<sup>9)</sup>의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성과 대인관계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Ryan과 Shim<sup>10)</sup>의 연구에서 학습목표성향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며, 대학에서도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연계하여 전공 관련 봉사 등 바람직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직업적응을 위한 직업 인성역량 평균은  $3.96 \pm 0.47$ 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별 평균은 배려  $4.51 \pm 0.4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이  $3.54 \pm 0.84$ 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기에서 배려와 맥락적 사고능력, 열정이 4점 이상을 보여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자기조절능력, 자기이해능력, 의사소통, 신뢰성 등의 기초직업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가운데 타인에 대한 배려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연구결과 배려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수 항목으로 생각되어지고 이미 이러한 덕목을 갖춘 치위생학과 학생이라면 임상에서도 잘 적응하고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직업인이 높은 수준으로 가져야 하는 기초직업능력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치위생 교육과정에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박<sup>12)</sup>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전체 인성 인식정도가 3.74점, 하위 항목 중 양심영역에서 4.10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치과 진료에 있어 치과위생사는 환자와 직접적인 대면 관계에서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할이다<sup>13)</sup>. 그래서 의료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좋은 인성은 의료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문 직업관 확립의 기초가 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전공성적은 직업인성 역량의 자기이해, 자신감, 적극성과 유의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모든 직업 인성역량의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업 인성역량 중 하위영역별 평균은 적극성, 신뢰성, 공동

체 의식 순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배려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 등<sup>14)</sup>의 연구에서 미래에 보건직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으로 창의성, 협동성, 적극성, 책임감이라 하였다. 업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보건의료계열 종사자는 조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대학생의 직업인성 역량은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기관리, 자기 분야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고 전공에 따른 직업역량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공에서 요구되는 차별화 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sup>15)</sup>. 간호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박<sup>16)</sup>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인성적 특성에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도우려는 배려 72.2%,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성실함 57.8%, 자신의 업무나 역할을 원칙에 준하여 완수하는 책임감 56.7%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치과위생사의 인성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업무 외에도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sup>8)</sup>. 인성은 도덕적 인지, 감정, 행동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며, 교육을 통해 함양이 가능하다<sup>17)</sup>.

자신의 직업인성을 고려하지 않는 진로 및 직업의 선택은 학습 참여도 및 성취도가 저하<sup>18)</sup>되고 더 나아가 직장 내에서의 적응 부족이 역할 갈등과 만족감 저하로 이직과 삶의 질 저하가 원인이 된다<sup>19)</sup>. 이<sup>20)</sup>의 연구에서도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대인관계 능력 등으로 구성된 핵심역량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수업이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와 공<sup>21)</sup>의 연구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인성은 '직업적응과 다양한 직무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지식적 특성'으로 정의<sup>8)</sup>하고 있으며 직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특성 또한 변화되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교육 현장과 산업체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구지역의 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이 인성 정도를 확인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전문대학생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직업적응에 필요한 직업인성을 확인하여 취업교육과 치과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재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보건의료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가진단 검사로 활용하여 자기이해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변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별 직업인성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 및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하거나 보충되어야 하는 영역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직업인성 역량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3년제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직업인성역량 상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직업인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직업인성역량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F=10.589, p<0.000$ ), 전공 성적이 높을수록( $F=3.704, p<0.01$ ) 유의하게 높았다.
2. 연구대상자의 직업적응을 위한 직업인성역량 평균은  $3.96 \pm 0.47$ 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별 평균은 배려가  $4.51 \pm 0.4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이  $3.54 \pm 0.84$ 점으로 가장 낮았다.
3. 연구대상자의 직업인성역량은 전공만족도( $r=0.349, p<0.01$ )와 전공성적( $r=0.154, p<0.05$ )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성적은 직업인성역량의 자기이해( $r=0.160, p<0.05$ ), 자신감( $r=0.145, p<0.05$ ), 적극성( $r=0.140, p<0.05$ )과 유의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모든 직업인성역량의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업인성역량 중 하위영역별 평균은 적극성( $r=0.835, p<0.00$ ), 신뢰성( $r=0.769, p<0.00$ ), 공동체 의식( $r=0.767, p<0.00$ ) 순으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배려( $r=0.696, p<0.00$ )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건의료계열의 특성을 고려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개인별 직업인성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 및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하거나 보충되어야 하는 영역의 경우 개별상담을 통해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치위생학 교육과정에서도 직업인성역량개발을 위해 치위생 윤리교육이 필요하고, 대학 차원에서도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ORCID ID

Jung-Hwa Lee, <https://orcid.org/0000-0001-8936-2988>

## 참고문헌

1. Cho NS.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ducation. *Education Review* 2017;39:330-347.
2. Lee JH. Great transformation of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nsun Brief* 2017;2:158-189. [http://www.hansun.org/korean/file/161007\\_brief.pdf](http://www.hansun.org/korean/file/161007_brief.pdf)
3. Park JH, Lee YH. Influence of dental hygienists' core competencies on job performance. *J Dent Hyg Sci* 2017;17(2):142-9. <https://doi.org/10.17135/jdhs.2017.17.2.142>
4. Ministry of Legislation.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Act No. 13004, January 20, 2015,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17.
5. Retrieved November 18, 2021, from College Basic

- Competency Diagnosis.  
<https://www.moe.go.kr/boardCnts/>
6. Kim MU, Kim T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occupational personality required for industrial high school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18;37(6):1–25. <https://doi.org/10.37210/JVER.2018.37.6.36>
  7. Chae CK, Yang JS. Korea's Youth Recruitment Market II: Interview Phase Published data Periodical KRIVET Issue Brief (No. 113, published on December 15, 2016),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Sejong, 2016.
  8. Yang MJ.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Occupational Personalit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20;23(2):149–179.
  9. Shin MS, Hwang JM. Personal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2;8(2):91–97. <https://doi.org/10.17703/JCCT.2022.8.2.91>
  10. Ryan A, Shim S. Social achievement goals: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different orientations toward social competence. *Pers Soc Psychol Bull* 2006;32(9):1246–1263. <https://doi.org/10.1177/0146167206289345>.
  11. Lee MR, Nam MH. The effects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9):553–562.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9.055>
  12. Lee SM, Park JE. Degree of personality recognition by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9;19(3):399–408.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32>
  13. Kim YJ, Han GS.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eadership, commitment, patient orientation, and job performance in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5;15(5):550–9. <https://doi.org/10.17135/jdhs.2015.15.5.551>
  14. Kim S et al. In-depth interview about expected role and competency of future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969–978.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6.969>
  15. Kim J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vocational character compet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9.
  16. Park JH. Essential competency of new graduate registered nurse that has been perceived by experienced senior nurses. *Asia-pacific J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1):567–575.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051>
  17. Lee YS, Kwon MJ. A longitudinal study on character level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2015;36:259–282.
  18. Lim JY et al.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SAT score and GPA of student Nurses. *J Korean Acad Nurs* 2001;31(5):835–845.
  19. Lee SM.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factors on work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rvention. *J Korean Acad Nurs* 1995;25(4):790–806.
  20. Lee YJ.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 model for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key competence focused clothing & textil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2014;20(2):71–94. <https://doi.org/10.17055/jpaer.2014.20.2.71>
  21. Seo HS, Kong ES. The effect of personality educ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self-esteem, self-expression, and soci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2009;15:53–70.

## ABSTRACT

## A Study on the Occupational Personality Compet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Young-Sun Kim · Young-ran Jung · Jung-Hwa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Background:** A study was conducted to check the occupational personality competency status of students enrolled in the three-year dental hygiene department and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vocational personality education to be prepared according to these results.

**Methods:** For 240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Area, Daegu, the College Student Occupational Personality Scale (OPSU) was administered.

**Results:** The higher the major satisfaction ( $F=10.589, p<0.000$ ) and the higher the major performance ( $F=3.704, p<0.01$ ), the higher the vocational personality competency. The average occupational personality competency for job adaptation was  $3.96\pm 0.47$  points (out of 5 points). As for the average for each sub-area, consideration was the highest at  $4.51\pm 0.42$ , and confidence was the lowest at  $3.54\pm 0.84$ . Among professional personality competencies, the average of each sub-area showed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in the order of positivity ( $r=0.835, p<0.00$ ), reliability ( $r=0.769, p<0.00$ ), and community consciousness ( $r=0.767, p<0.00$ ), and consideration ( $r=0.696, p<0.00$ ) showed the lowest correlation.

**Conclusions:** Personalized career and employmen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occupational personality lev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and medical fields, and individual counseling should be provided in areas that are insufficient or supplemented. In addition, dental hygiene ethics education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personality competencies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and universities should spare no support for completing vocational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society by using comparative programs.

**Key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Occupational personality, Personality education